

2022년도 인권담당관 세입·세출 예산안
제 안 설 명 서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인권담당관 권명희입니다.

- 오늘 2022년도 인권담당관
세입·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아
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
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인권담당관 2022년도 예산은
최근 변화하는 인권환경에 대응하여
시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증진해 나가는 것을
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.

- 그럼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
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안에 대해
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2022년도 세입 · 세출예산안 총괄

□ 2022년도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.

○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

총 3백 9십 2만 5천 원으로

전년 대비 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
○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억 5백만 원으로

2021년도 최종예산 13억 5천 7백만 원 대비

2억 5천 1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,

이 중 사업비는 10억 4천 9백만 원이고,

행정운영경비는 5천 6백만 원입니다.

세입예산안

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.

2022년도 세입예산안은

전년도 3백 8십 9만 5천 원에서

3만 원 증액한

3백 9십 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.

○ 이는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과

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으로

최근 3년 동안의 평균치로 추계하여

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.

세출예산안

-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2022년도 인권담당관 세출예산안은 총 11개 세부사업, 11억 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.
-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첫째, 서울시정 내 인권 가치 확산 및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‘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’에 3억 2천 2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.

주요 사업내역은

- 서울인권아카데미 운영 1억 6천 5백만 원
- 인권강사 양성 6천만 원
-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5천 2백만 원

등 입니다.

- 둘째, 국내외 인권 거버넌스 참여주체 간 교류 협력의 장인 ‘서울 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’ 개최에 1억 3천 4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.
- 셋째,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‘범죄피해자 보호 지원’에 1억 2천 7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.
- 넷째, 향후 5개년 동안의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‘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’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,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‘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’에 9천 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.

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저를 비롯한 인권담당관 전 직원은

2022년에도 서울시민의 삶이 인권적으로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.

2022년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

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을

원안대로 심의·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
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. 11. 22.

인권담당관 권명희